

# 목포 북항 공공시설 관리 엉망... 관광객 '눈살'

## 이동 화장실·공용 주차장 각종 쓰레기 방지

## 목포항만청 "인력 부족 탓... 대책 마련할 것"

목포 북항내 공공 화장실과 공용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목포 지방항만청은 북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어업 전진기지향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친수(親水) 문화공간 조성과 배후부지 조성사업 등 수산산업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북항 배후부지(34만3000㎡)에 274억원, 친수 문화공간(2만7000㎡)

에 119억원 등 총사업비 393억원이 투입됐다. 부두가에는 이동 화장실과 공용 주차장도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점검해보니 공공 화장실 2곳 가운데 한곳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못질이 돼 있고, 나머지 한 곳은 각종 쓰레기와 휴지들이 넘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공공 주차장 역시 쓰레기가 아저 돼 있는 등 북항이 서남권 중심항으로 발돋움하는 미항(美港)이란 구호

가 무색할 정도였다. 최근 목포북항을 찾았던 한 관광객은 목포시청 게시판에 '시장님 목포시민 여러분 공공화장실 사진 좀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외지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항에서 만난 관광객 박모(46)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는데 너무 더러워서 이용할 수가 없었다"며 "손님이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화장실을 보고 주인의 성품을 보게 되

는데 목포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목포의 첫 인상이 어떨지 너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 항만청 관계자는 "북항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주변 지역민들의 건의에 따라 지어 주었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목포시와 수협, 지역 어촌계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신안군청서 '커피 한잔'

## 청사내 '1004카페' 개업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

전남 도내 처음으로 신안군 청사 내에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004카페'가 1일 문을 열었다. 신안군과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자활 역량강화를 위해 카페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1004 카페'는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황예경(45)씨가 자활 근로자들과 함께 질 좋은 원두를 사용, 맛있고 깊은 향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수익금은 자활기금과 자

활기금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지역 자활센터 '1004 카페' 사업 이외에도 지난해에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 분식점(향촌)도 개점했다. 이곳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등 지역 자활센터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4 카페가 직원들과 지역주민, 청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돼 청사를 보다 편안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이달의 수산물 미역·다시마·가자미

## 해수부 4월 '어식백세' 발표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전남 대표 수산물'이며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주인공인 미역·다시마와 고단백 저칼로리 생선인 가자미를 4월의 '어식백세'(魚食百歲) 제철 수산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미역은 '바다의 채소'로 불리며, 지난해 한해 동안 전남지역 생산량이 29만9055t(487억7100만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90.4%를 차지했다. '지구상 최초의 풀'이라고 해 '초초'(草草)라 부르는 다시마는 지난해

전남지역 생산량은 37만2899t(713억2100만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95%나 차지하고 있다. 가자미류는 부산, 경북, 경남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로, 전남의 생산량은 2.8% 정도다. 양근식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돼 풍부한 영양 성분을 지닌 건강식품인 4월의 제철 참살이 수산물 미역과 다시마를 온 국민이 즐겨 찾는 수산물이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목포시 도자기 전국 공모전 개최

목포시가 도자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제6회 목포 도자기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서남권 도자문화 중심지인 목포시가 창조적인 신규 작품을 발굴, 국내 도예문화의 미래

방향과 가치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생활·조형 등 두 분야에 걸쳐 도예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과 일반인이 대상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동전 던지며 소원 빌기

관광객들이 해남군 송지면 딸꿈마을에 최근 조성된 '희망공원'을 찾자 희망 분수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고 있다. 해남군은 분수에 모이는 동전을 세게 오지마을 우물 개발사업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인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할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 해남소방서 대형재난 긴급구조 훈련

## 완도 해조류박람회 대비

오는 11일 개막하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앞두고 해남소방서(서장 김승룡)는 최근 대형 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긴급구조 통제단 분시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가상훈련은 박람회장 건물붕괴와 대형화재, 관광객과 행사요원들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소방서 통제단 운영요원의 대처 능력

향상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김인순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훈련은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의 안전한 소방대책 향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렸다"며 "대형 재난현장에서 발 빠른 긴급구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요소인 만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전북



#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 키운다

## 한국식품연구원과 MOU

순창군이 국책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건강·식품·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을 국책 사업으로 키운다. 순창군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권대영)은 지난 3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건강·식품·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대영 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역행복 생활권 지원 정책과 연계해 건강·식품·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육성의 거점기지로써 순창군이 충분한 성장가능성이 있

다"며 "한국식품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순창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식품·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순창군의 발효미생물 산업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건강·식품·친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유치와 농가소득 향상 측면에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나무 심으세요"

정읍 산림조합(조합장 김민영) 직원들이 '1 시민 1나무' 캠페인 일환으로 최근 내장산에서 시민들에게 나무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가옥으로 손꼽히는 중요민속문화재 26호 김동수 가옥. <정읍시 제공>

# 정읍시, 명품 한옥 체험관 조성

## 산외면 오공리에

## 숙박·전통문화 체험 공간

정읍에 명품 한옥체험관이 들어선다. 정읍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숙박시설과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갖춘 고택(古宅) 체험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고택 체험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 전통가옥으로 손꼽히는 김동수 가옥(중요 민속문화재 제26호·사진) 인근인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에 건립된다. 사업비는 국비 10억5000만원과 시비 10억5000만원 등 총21억원

이 투입된다. 시는 그동안 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 후 3월 실시계획을 완료했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고택 체험관은 안채를 비롯해 사랑채를 겸한 행랑채, 별채 등으로 구성된다. 외형은 한옥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되 내부는 한옥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립될 예정이다. 또 한옥 특유의 고즈넉함과 멋을 살리되 체험객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한옥생활 선입관에서 벗어나 편리하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워진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시는 고택 체험관이 건립되면 김동수 가옥을 중심으로 원연에 조성돼 있는 'THE GOGA'와 오련관의 '고택 체험관'이 조화롭게 연계됨에 따라 단순히 거쳐 가던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택시 관계자는 "고택체험관 건립 예정부지가 당초 김동수 가옥 건립자인 김명관의 둘째 아들이 분가하기 위해 세운 한옥이 있었다"고 한다"며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터와 연지 등 관련 유구를 확인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복원 형태로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단신

# 전주시 동물원 '시민과 함께하는 벚꽃축제' 개최

전주시 동물원(원장 이은현)은 벚꽃 개화기인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시민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를 연다. 시는 축제기간 동안 동물원 개방 시간을 평상시보다 3시간 늘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동물막사와 동물원내 놀이시설 기구인 드림랜드도 연장 운영한다

또한 동물원내 1.5km에 이르는 벚꽃 거리에 특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야간 불빛에 비친 토종 왕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전주 동물원에는 수령 30년 이상 된 토종 벚나무 3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전주·부인=강철수기자 knews@

# 남원시 '야간 국악 연수반' 오늘부터 운영

남원시는 2일부터 9일까지 6개월간 직장인 60명을 대상으로 '야간 국악 연수반'을 운영한다. 연수과정은 판소리, 가야금, 무용, 사물놀이 등 4개 부문으로, 주 2회(화·목요일 오후 7~8시) 노암동 국악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판소리는 민요와 단가·춘향가 중

'사랑가', 가야금은 민요와 산조, 무용은 기본무·임춘, 사물놀이는 기초 사물놀이·설장구 등 위주로 감성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국악의 고장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심고자 야간 국악 연수반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정읍 시립중앙도서관 '북아트 1급 지도자' 수강생 모집

정읍 시립 중앙도서관은 오는 8일까지 '북아트 활용교육 1급 지도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북아트'는 문학, 언어, 과학, 역사, 예술의 영역을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접목해 교육현장 및 자녀의 독서지도에 활용가능한 한 교수기법이다.

이번 과정은 오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30차에 걸쳐 이론과 실기수업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30차 전 과정의 재료비 34만원은 개인부담이다. 문의(063-539-6432)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고창서 오늘 '광대열전2-대단한 탄생' 공연

'국악예술단 고창'(대표 오승일)은 2일 오후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픽션 사극 콘서트 '광대열전2-대단한 탄생' 쇼케이스 무대를 갖는다. 관람료는 5000원이다. 고창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공연단체인 '국악예술단 고창'은 판소리 중시 조인 돌리 신재호 선생과 최초의 여

성소리꾼 진채선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한 '광대열전 2'를 선보일 예정이다. 5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광대열전 2'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고창읍 모암성로 한옥체험마을 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